

■ 화제의 인물/단월드 문헌센터 박보라 원장

치과의사에서 단학 강사로 전향 “마음까지 고치는 ‘참 의사’ 됐어요”

“손바닥 사이로 뭔가가 느껴지시나요?”

고개를 가웃하자 대답했던지 박보라 원장이 자신을 따라 해보라고 했다. 손바닥을 빠르게 몇 번 마찰시킨 뒤 30분 가량 빠르고 세게 손뼉을 친 다음 손바닥을 문질렀다. 두 손을 마주하고 눈을 감자 손바닥 사이로 알 수 없는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따뜻하고 몽글거리며 손바닥을 밀었다 당겼다하는 정제 모를 힘. 정전기 현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박 원장은 “그게 바로 기(氣), 에너지의 느낌”라고 했다. “수련을 오래 하면 가만있어도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올해로 개원 5주년을 맞은 단월드 문헌센터의 박보라 원장에 따르면 기수련의 효과는 ‘만병통치’에 가깝다. 단월드 문헌센터의 회원은 100여명. 적지 않은 회원들이 수련을 통해 수많은 치유를 경험했다고 한다.

불변증 약을 완전히 끊었다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도 디스크 통증이 사라졌다는 회원이 있다. 병비와 치질로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고도 수련과 힐링 만으로 완치된 이도 있다고 한다.

어떤 회원은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던 장관리를 통해 ‘중세’가 없어졌는가 하면 극심한

생리통으로 자궁적출 수술 날짜까지 잡았다가 그의 손길에 닿은 지 며칠 만에 생리통이 말끔히 사라지기도 했다고. 이밖에 우울증,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갑상선 및 스트레스 해소, 금연·금주, 집중력·창의성·리더십 향상 등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한다.

이게 가능할까? 박 원장은 “막힌 기와 독소를 풀어줬을 뿐”이라고 했다. ‘기혈순환의

월드에서 수련을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단월드 회원으로 가입, 수련 생활을 시작했다. 집중력과 체력,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활력과 자신감이 생겼다. 더불어 표정이 바뀌면서 삶의 가치관도 달라졌다. 졸업 이후 치과의사로 7년여 생활했지만 큰 보람을 갖질 못했다.

“서양의학은 섬세하고 치밀하지만 숲이 아닌 나무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서양의학의 한계를 동양의학, 특히 단학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피부로 느꼈기에 5년 전 프랜차이즈 형태의 단월드를 창업 삼아 개관했다. 치과의사와 단월드 강사, 그렇게 ‘이중생활’을 병행하다 지난해 치과를 완전히 접고 수련 지도와 개인 힐링에 매진하고 있다.

“에 치과의사를 그만두고 이 일을 하느냐”고 회원들이 물으면 “더 즐겁고 보람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단학 수련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몸 외에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것. 특히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 우울증이나 자살감 부적으로 무기력한 회원들이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기쁨과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보람 있다고. 박 원장은 조만간 ‘전공을 살려’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선도 수련의 놀라운 힘을 보여줄 계획도 잡고 있다.

서울대 자퇴 후 치과의사 전향, 다시 단월드 매료

“기와 혈 풀어 심신의 치유력 올리는 게 단학 원리”

놀라운 힘’이라고도 덧붙였다. “성능이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전원이 안 들어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기수련은 컴퓨터에 전원을 넣듯 우리 몸에 기와 혈을 순환시켜, 치유능력을 높여 몸과 마음을 낫게 하는 원리입니다.”

단학과 선도(仙道)의 놀라운 효과 못지않게 박 원장의 이력이 흥미롭다. 최근까지 치과의사로 근무했다. 선대부터 남구 토박이라는 그는 1988년 서울대 전기공학부에 입학했다. 적성에 맞지 않아 다시 2001년 부산대 치의예과에 들어갔다. 이 무렵 여동생이 단



단월드 문헌센터의 박보라 원장이 회원에게 몸의 독소를 풀어주는 기마사지를 하고 있다.

“예전에는 병만 보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보이고, 그것을 통해 병의 뿌리를 찾게 됐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고치는 진짜 의사가 된 기분이에요.”

봉사단체 미우회 윤진수·김옥미씨 기능대회 수상



문현1동 주민자치회 봉사단체 미우회의 회원 윤진수(왼쪽 사진), 김옥미씨가 지난 5월과 6월 부산과 경남에서 개최된 이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현1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인 미용사 자격증반(강사 신송자) 수강생 15명으로 구성된 미우회는 지난 2003년부터 요양원과 지방 오지마을을 찾아 미용 봉사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 문수사 지원 스님



남구 용당동의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이 안전행정부가 설립한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로 최근 선임됐다.

이번에 선임된 이사 12명 가운데 종교인은 지원 스님이 유일하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복지 지원·문화·학술사업, 유해발굴,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건립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친다.

■ 남 구 의 새 인물

김 남 영 한국은행 부산본부장



한국은행 신임 부산본부장에 김남영(53) 한국은행 전 금융시장부장이 지난 6월 24일 취임했다.

김 본부장은 1988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기획국 차장, 금융시장국 차장, 금융시장국 자금시장팀장, 충북본부 기획조사팀장, 금융시장국 주식시장팀장, 통화정책국 금융시장부 자본시장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통화금융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전 을 수 수형세무서장



수형세무서 제35대 전을수(52) 서장이 지난 6월 30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경남 의령 출신인 전 서장은 지금은 없어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1984년 국세청 8급 특채로 임용됐다. 출근 서울에서 근무한 전 서장은 2007년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장, 국세청 조사과, 양천세무서 법인세과장, 국세청자산과세과를 거쳐 지난해 5월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전 서장은 취임사에서 “세정 집행에 있어 합리적 부과와 정밀 징수로 납세자가 신뢰하는 세무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공 정 석 남부소방서장



새 남부소방서장으로 공정석(56) 동래서장이 지난 2일 취임했다. 경남 창원이 고향인 공 서장은 소방간부시험에 합격 1985년 지방소방위로 임관했다. 중부·사하소방서 등을 거친 뒤 2010년 지방소방정으로 승진, 이후 기장소방서장과 동래소방서장을 역임했다. 은화하도 직무와 관련하여는 치밀하다는 평을 듣는 공 서장은 2005년 대통령 표창과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4회 수상했다.

공 서장은 취임사에서 “남구 일원은 대학가 등 다중이용업과 콘텐츠 이니 저장소가 위치해 정확한 취약요인 분석을 통한 철저한 예방과 전문성을 통한 완벽한 상황 대처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인 규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장



새로 문을 연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의 지사장으로 하인규(52)씨가 지난달 임명됐다. 하 지사장은 1989년 부산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사한 뒤 1999년 국민연금공단으로 옮겨 제주, 포항, 통영 등에서 일했다.

“남은 삶 참전용사 권익보호 헌신”

6.25 참전유공자회 고영철 남구지회장 대통령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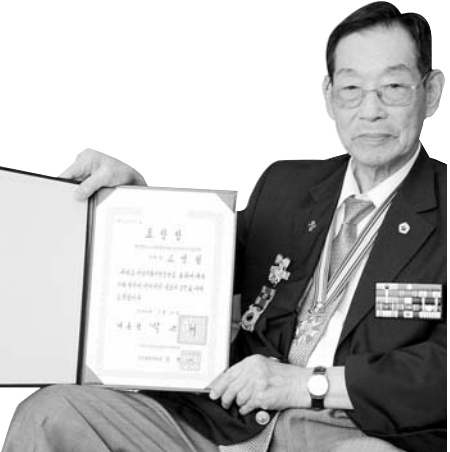
6·25 참전유공자회 고영철(83) 남구지회장이 지난달 25일 대통령상을 받았다. 전국에서 20여명이 청와대에 모였는데 6.25참전용사로는 고 회장이 유일했다.

충북 영동이 고향인 고 회장은 고등중학교 5학년인 19세 때 6·25가 발발, 가족과 함께 대우로 피난을 가던 중 학교병으로 자願 입대했다. 대구 교육대에서 군번도 없이 2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적 탱크를 부술 특공대’를 모집한다’는 말에 다시 1개월 특수교육을 받고 지뢰 매설이 주임무인 야전공병으로 복무했다. 휴전 이후 해소 위 전급, 1964년 중위로 예편했다.

참전 기간 수없이 많은 사연을 넘나든 고 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1·4 후퇴 직전 혼자 중공군을 대면할 뻔한 일화를 꼽았다. 차량 사고로 행렬에서 뒤처져 온전병과 어딘지도 모를 산골에 갇혔다. “남은 자를 어 감감한데 는 내린 적막강산에 바람소리만 들릴 때였습니다. 문득 바람에 어린 피리 소리 같은 게 실려 오는 게 아닙니까. 중공군의 행과리 소리였겠쇼. 끔찍없이 죽었구나 싶습니다. 저희 트럭에 탄악과 폭악이 가득 실려 있었는데 이게 적들에게 휘어가면 절대 안돼 트럭을 폭파시키려고 휘

발유를 뿌리려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저를 찾아 나선 국군이였쇼. 그때 조금만 늦었어도…”

전역 후 20여년 경찰로 근무한 고 회장은 2008년 6·25 참전유공자회 부산 남구지회장으로 취임했다. 지회장으로 취임되자마자 부산 지역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타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부산에만 참전수당이 지급되지 않자 김정훈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부산시장을 설득해 참전수당을 지급받게 했다.



“이정도면 대통령보다 잘 살았지라”

대연2동 이이동씨 칠순잔치 대신 고향친지 초청 화제



“우리 이동이 부산 와서 출세해 부럽네.” “아마 형님, 출세는 무슨 출세요! 허긴 아들딸 키우고 이만큼 무탈하게 살았으니 대통령보다 잘 살았지라, 허허”

이이동(대연2동)씨는 얼마전 자신의 칠순잔치 대신 전라도 고향 친지 120명을 부산으로 불러 성찬을 벌였다. 식대와 숙박비로 1200만원이 들어갔다. 자수성가한 기업가의 친지 초청 같아도 실상 그는 지금도 새벽 막일을 나가는 평범한 소시민이다.

1968년 어느 가을날, 청년 이이동은 전남 함평군 신광면 산골 집을 나와 부산행 버스를 탔다. 지갑에는 단돈 2500원이 있었다. 첫발을 디딘 곳이 남구였다. 낯설고 물설은 땅에서 온갖 막노동에 야채 행상까지 닥치는 대로 했지만 빛은 보이지 않았다. 산에서 자고 굶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러나 별이가 좋다는 말에 부정이 외항선을 탔다. 1975년989년까지 14년을 외항선 주방에서 생활했다. 130개국을 넘나들며 ‘배동’을 벌 기회도 있었다. 주방 근무의 이점을 살려 칠레에서 새우상자를 3달라에 사 미국에 입항해 17달러에 되팔기도 했다. 어느 영국인이 그에게 밍크담요 수출을 권유했다. 솔깃했다. 하지만 돈도 없고 영어

도 짧아 업무가 나질 않았다. 앓고 못 배운 한에 울분을 삼켜야 했다.

그래도 타고난 성실함으로 퇴선 후에 항운노조에 취직해 정년을 맞았다. 장년 후에도 그의 성실함을 눈여겨 본 무역업체가 일지리를 마련해줬다. 매일 새벽 4시 우암동 부두에서 컴퓨터 액정 등에 쓰이는 원자재를 하역해 트럭에 옮겨 싣는 일이다. 힘에 부쳐도 이나이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 여긴다. 몇 해 전부터는 대연5동복지관에서 스포츠댄스를 배우고 있다. 몸이 유연해 얼마 안 가 복지관에서 꽤 유명한 ‘댄서’가 됐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살고 싶다”며 그가 씩스럽게 웃었다.

김옥련 기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과 함께합시다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요일	시간	접수	문의처
문현1동	서예교실	월, 금	10:00~12:00	대기자접수	607-6622
	컴퓨터교실	수, 목	10:00~12:00		
	양자출판교실	월, 금	10:00~13:00		
	컴퓨터교실	월, 수	10:00~12:00		
	틀, 대연2동사	화, 목	11:00~12:20		
	요가교실(초급)	화, 목	10:00~11:00		
	틀, 대연2동사	월, 화	15:00~16:30		
	에르신한글교실	수	10:00~12:00		
	틀, 대연2동사	목	13:00~15:00		
	노래교실	틀, 대연2동사	수	13:30~15:30	
문현2동	생활영어교실(초급)	월	10:00~12:00	수시	607-6642
	생활영어교실(중급)	월	10:00~12:00		
	신아초 및 발효식품	월	14:00~16:00		
	한국무용	수	10:30~12:30		
	풍물교실	화	10:00~12:00		
	한지공예	수	10:00~12:00		
	노인강좌	목	13:00~17:00		
	스포츠댄스	화, 금	11:00~12:00		
	단오가(초급)	월, 목	11:00~12:00		
	단오가(중급)	화, 금	09:30~10:30		
문현3동	단오가(상급/권리타운)	월, 수	20:00~21:00	대기자 신청가능 (현재마감)	607-6662
	영어민중국어교실(중급)	목	10:00~12:00		
	영어민중국어교실(초급)	금	13:00~15:00		
	서예교실	화	14:00~16:00		
	문인화교실	목	14:00~16:00		
	서예한자교실	월	10:00~12:00		
	문인화교실	화	13:00~15:00		
	컴퓨터교실	화, 목 (2개월)	10:00~12:00		
	디깅에 하는 영어교실	수	10:00~12:00		
	풍물교실	수	14:00~16:00		
문현4동	월링노래교실	금	10:00~12:00	상시접수	607-6682
	요가교실(초급)	목	10:00~12:00		
	요가교실(중급)	화	10:00~12:00		
	스포츠댄스	월, 수	11:00~12:00		
	에르신건강체조(초급)	월, 수	15:00~16:00		
	에르신건강체조(중급)	월, 수	13:30~14:30		
	문인화	목	10:00~12:00		
	풍물교실	수	14:00~16:00		
	서예교실(초급)	화	10:00~12:00		
	서예교실(중급)	목	10:00~12:00		
문현5동	생활영어교실(성인)	금	10:00~12:00	접수완료	607-6688
	생활사주교실	화	15:00~17:00		
	풍물교실	수	10:00~12:00		
	민요교실	수	14:00~16:00		
	요가교실(통시2층)	화, 목	10:00~12:00		
	풍물교실(통시2층)	월, 금	10:00~12:00		
	영어교실(통시2층)	화, 목	14:00~16:00		
	서예교실	수	14:00~16:00		
	요가교실(통시2층)	화, 목	10:00~12:00		
	풍물교실(통시2층)	월, 금	10:00~12:00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요일	시간	접수	문의처
문현6동	풍물교실	수	10:00~12:00	수시접수	607-6688
	에르신한글교실	월, 금	월 14:00~16:00 금 10:00~12:00		
	창의예술NITE	화	16:00~18:00		
	어린이한글교사	수	16:00~18:00		
	생활과학교실	목	15:00~16:30		
	8월은 방학, 9월초 개강예정(시간,강좌명에는 추후 결정)				
문현7동	컴퓨터 초급	월, 금	14:00~16:00	접수마감	607-6722
	일어교실(초급)	화, 목	10:00~11:00	대기자 접수	
	일어교실(중급)	화, 목	11:00~12:00	접수중	
	요가교실	화, 목	12:30~13:30	대기자 접수	
	문인화 교실	화	14:00~16:00		
	시니어 자연치유 교실	월, 수, 금	16:00~18:00		
문현8동	저소득 청소년 태권도교실	월, 수, 금	18:00~19:00	접수마감	607-6745
	토요스포츠교실	토	10:00~12:00	대기자 접수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수	16:20~17:50	접수중	
	컴퓨터교실(초급반)	매주 수, 금	14:00~16:00	가능(신청수 30명)	
	풍물교실	매주 월, 목	월 15:00~17:00 목 14:00~16:00	가능	
	문인화교실	매주 수	수 10:00~12:00		
	한지공예교실	매주 화	화 10:00~12:00		
	에르신 노래교실	매주 수	수 14:00~16:00		
	썬지도서관 도서관대어	매일	09:00~18:00		
	문현9동	요가 I	월, 수	11:00~12:00 (9월 개강)	
요가 II		화, 목	11:00~12:00 (9월 개강)	2014. 8. 11~ (대기자 접수)	
신나는 건강댄스		월, 수	14:00~15:00 (9월 개강)	2014. 8. 11~ (신청수)	
수지점		수	10:00~12:00 (9월 개강)	2014. 8. 11~ (신청수)	
꽃꽂이교실		화	14:00~16:00 (9월 개강)	2014. 8. 11~ (신청수)	
월링! 오카리나		수	14:00~16:00 (9월 개강)	2014. 8. 11~ (신청수)	
문현4동	서예교실(초급)	화	10:00~12:00	연중	607-6785
	서예교실(중급)	목	10:00~12:00		
	생활영어교실(성인)	금	10:00~12:00		
	생활사주교실	화	15:00~17:00		
	풍물교실	수	10:00~12:00		
	민요교실	수	14:00~16:00		
문현5동	요가 교실(통시2층)	화, 목	10:00~12:00	연중계속	608-6802
	풍물 교실(통시2층)	월, 금	10:00~12:00		
	영어교실(통시2층)	화, 목	14:00~16:00		

구분	프로그램명	운영요일	시간	접수	문의처	
문현9동	스포츠댄스 (선포어교실 5층 물리관)	월, 수	10:00~12:00	연중계속	608-6802	
	(형대1파크관리사무실 지하2층 체력단련실)	화, 목	09:00~10:00			
전남1·9동	사물놀이	매주 월, 수	14:00~16:00	접수중	607-6826	
	서예교실 (초급반)	매주 월	10:00~12:00	접수마감		
	서예교실 (중급반)	매주 수	10:00~12:00			
	단학교실 (초급반)	매주 월, 금	10:00~11:00	접수중		
	단학교실 (중급반)	매주 월, 금	11:00~12:00			
	요가교실	매주 화, 목	10:00~11:00	접수마감		
	노래교실	매주 화	10:00~12:00			
	생활영어	매주 월	10:00~12:00			
	중국어교실	매주 금	10:00~12:00			
	노래교실	매주 화	13:00~15:00	수시 모집 (성인)		
전남1·9동	요가교실	매주 월, 수	10:00~12:00	수시 모집 (성인)	607-6842	
	스포츠댄스	매주 화, 금	10:00~12:00			
	하모니카 교실	매주 목	10:00~12:00			
	역사는논술교실	매주 토	10:00~12:00			
	체력단련실	월~토, 토	06:00~20:00 09:00~17:00			수시 모집 (초등3~5년)
	어린이 영어	매주 화, 목	16:00~18:00			수시 모집 (성인)
	생각쟁이 논술교실	매주 화	15:00~16:30			수시 모집 (초등3~5년)
	추신암산교실	매주 화	14:00~16:00			접수중
	요가교실	매주 수, 금	12:30~13:30			접수대기
	스포츠댄스	매주 수, 금	14:00~15:00			
여천9동	생활단전체제	매주 수, 금	15:30~16:30	접수중	607-6876	
	서예교실	매주 월	13:00~15:00			